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김영덕
편집장	김영덕
주필	김재수
외대신문사	4962-7128, 961-4151
외대학보	4961-4152, 961-4183(FAX)
학생기자실	959-6574, 6335-30-4112
130-791	서울시 용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389
인쇄인	김상영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1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13호 1993년 9월 27일 (월)
1958년 3월 27일 제3호 우편물(7)급인가

1

서울 정기학생총회 개최

용인 학생요구안 답변 회피에 항의

서울 캠퍼스

지난 22일(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2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의 모멘트를 여는 정기학생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학교교육의 5개년 발전계획에 대한 입장'과 '민주총장 선출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주총장선출, 학교발전의 전환점

총학, 총장추대 3자협의회 구성요구

특허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돈을 조달하는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습다"라며 5개년 계획안의 문제점을 개관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제안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외대수는 정기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단대추제를 세우고 각 단대의 차이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설을 완성하는 학생, 노조원들과는 달리 교수들은 교수를 중심으로 조율해 추진되기를 비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정인용(부역학) 교수는 "학생이나 직원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어떤 교수는 '살피가는데 갓발 뿌리는 격'이라고 까지 말한다. 지금 교수들의 정서는 학생이나 직원의 바람을 대지보통을 통해 듣는 정도는 몰라도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지면안내

- 3면: 용인총학 재결의서 학교측 전달
- 4면: 한가위 특집-북한의 추석
- 6면: 경기남부 연합 상임공동의장 김계상씨 프락치 사건
- 7면: 우리를 지키는 외대인-〈4〉
- 8면: 그림돌보기-학생과 직원간 어떻게 생각하나?
- 9면: 현정취체-경시대 사태
- 10면: 대학총장의 지위와 역할

그런데 무엇보다도 2학기의 현안은 향후 분교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총장선출'에 관한 사업이다. 총학생회는 출범선언문에서 '하느님도 구상된, 즉 교수, 학생, 직원이 존중하게 연대하기 위해 가장 '민주총장추대를 위한 3자협의회의 구성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총장선출방식의 문제, 총장 후보의 자격요건, 올바른 총장의 모습, 그리고 학생,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총장선출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철용(시향·영어 4)은 "외대발 전운중에 있어서 집적도야의 민기들이 될 수 있는 총장선출의 중요성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다. 또한 간부들이 자기과를 중심으로 교수님을 만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들과의 단결을 꾀하고 학생회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하튼 '재단부쟁의 인식과 학생회 강화'라는 2학기 학사기조를 틀어쥐고 총학이 발전방안 모색, 민주총장 선출, 정계 3주에 대해 투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쟁의 흐름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라는 과제는 93년 2학기 투쟁의 수위와 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근 기자>

용인 캠퍼스

후생복지관 건설을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학국과의 입장전진이 없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장 김민진(시향·영어 4)은 이 대학국에 제출한 공개건의



22일(수)과 24일(금) 용인 총학은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2일(수) 2학기 정기학생총회를 개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철용(시향·영어 4)은 "외대발 전운중에 있어서 집적도야의 민기들이 될 수 있는 총장선출의 중요성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다. 또한 간부들이 자기과를 중심으로 교수님을 만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들과의 단결을 꾀하고 학생회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부정적 답변에 항의시위 추석에도 투쟁은 계속

공개건의서가 전달되고 16일(목)에는 김덕원군과 이철용 총학생회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용은 관련 부처의 협의를 20일(월) 면담에서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의체로 면담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면담취소와 공개건의서 발원자부에 대한 규명명서를 발표하고 22일(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22일(수)에는 '후생복지관 건설과 학생발전을 위한 1차 비상학생총회(이하 총학)'가 열렸다. 이 직접 학생회장 김민진(시향·영어 4)은 이 대학국에 제출한 공개건의

반의자

한가위를 맞이하여

▲"다도 밟고 밟고 밟고 한가위만큼 잘이라"는 말이 있다. 추석기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인가가 이 말속에 담겨있고 표현되고 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추석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추석 귀향 버스 예매를 실시하는 등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우리 외대인들도 이와 고향을 간다는 설렘에 떠들고 있으리라.

하지만 과연 추석기간을 우리 외대인이 들뜬채로 보낼만큼 편히 쉬는 시간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외대가 발전하기 위해, 그리고 외대의 발전을 바라는 외대인에게는 우리 추석이 결코 빈껍데기만은 않을 것이다.

▲한해 용인캠퍼스 학원자주화 투쟁의 기세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1학기의 부진함을 딛고 어떻게 학사 분위기가 고조될 이 상황에서 추석을 기쁘게 맞이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후생복지관과 교통문제, 그리고 대생원, 동구대 단대본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5일간의 추석연휴는 지금 요양원 외대인의 학사 의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간관계가 걸리면 필진 학교측에만 이롭게 하는 것이다.

▲서울캠퍼스 측은 경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본다. 정기학생총회를 통해 모아진 정계, 수배 집회의 5개년 계획의 수립, 그리고 민주총장 선출을 위한 외대인의 의지가 기간동안 담결될 수 있다면 이만은 못하다고 본다. 수배된 간부들을 생각해야 한다. 즉,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 학생들이 고민해야 한다.

이 추석 연휴가 학생들을 믿고 정계, 수배에도 불구하고 뜻이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의외로 불편한 시기인 수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만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추석이 외대인과 외대발전과 그렇게 단결이 다가 오지만은 않다. 이 기간을 개인적인 안락만을 위해 보지 않고 좀더 큰 도야의 계기로 삼는 외대인의 지혜가 필요하다. 즉, 학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간부들을 지켜 내고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추석에는 보람단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고향을 찾은 우리 외대인이 전국 각지에서 하나의 보람단을 보여 기뻐해 보자. '외대발전'을,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다져보자. '외대인'이 함께 있는 한 외대발전은 '운명'일 것이다. <이민재>

학생들은 꽤 단대본리 단대원로 학생회, 총무부, 부총장실 등에 23일(목) 원의시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준비된 편지서를 직접적으로 풍선을 터뜨리는 등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부총장과 재단원을 가지기로 한 24일(금)에는 4시까지 넘는 시간동안 단회를 했으나 시로본리의 의견이 단도한 채 협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후 총학생회장은 오후 4시 정부터 제1회 2차 회의에서 원의에 대해 협의된 내용과 관련해 학생추석기간에도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한편, 학생회장 김민진의 답변서는 그동안 대학국에서 원의와 결의를 강조해 온 태도와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본보 3주간 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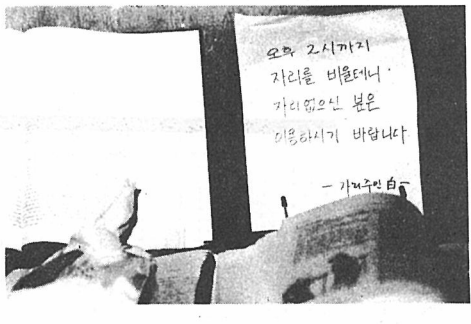
추석, 중간고사 관계로 본보 614호는 3주간(10월 25일)로 발행됩니다.

기획자그—이렇게 합시다 <5>

메뚜기,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가방과 책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책상,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메뚜기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밤 먹으러 갈때 수업 들러 갈때 불일 뜨러 자리를 비울때 꼭 한가지만 하세요. 조그마한 메모를 남기는 일입니다.



외 대 학 보

용인, 답변서에 대한 재질의서 전달

대학당국, 문제해결에 미온적 태도 학생측, 답변무성의에 강력투쟁 결의



대학당국의 부장적인 답변에 학생들은 다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용인캠퍼스 학원자주회 무명 요구사이에 대해 학생회장 명의의 공개 답변이 부장적임을 지적하며 재질의서를 발송할 것을 결의했다. 그 다음을 함축적으로 산본교 학생복지회 조장근은 산본교를 이라고 말했다. 학생측은 산본교를 3층으로 된 현대식으로 계획했으나 그 결과다 인는 92년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위한 공여 계획이 아니냐고 물었다. 교원문제에서 서클버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매각했다면 117만 파석, 172만의 자각 10대에 시 14대로, 3대에 시 6대로 증가되어 매각가격도 23일(목) 하루동안 학교로 들어오는 차량을 조차할 바에 의하면 172년의 경우 20년에서 30년

간격이라는 답변은 답의 오진 5년에서 12년까지 3대에 배 들어오지 않는다는 시기를 역전 히 지기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선 완공후 필요한 서클버스를 운행해 내다보지 못하 고 아무런 대책이 소용무시 되어 버렸다. 학생들은 2대를 매각한 사실도 지적했 다. 사망-양해 노선에서는 중 교시간에 국한된 일시의 한사 이므로 중차필요성이 있는나 고 말했다. 복지위원회에 관해

서는 구성과 복지관련 결정권 을 중심내용으로 대학측에 명 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학생들 은 복지위원 임명과정의 임의성 과 거꾸로 문제에 대해 특이한 답 변을 요구했다. 등구이대 단대관리문제에서는 장학금을 1명 추가기로, 미용 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도서관 입은 이용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미봉적인 답변을 주었다. 등구이대 학생회측은 운영위 원을 거친 후 공개입장을 발표 한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단 대본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이 계속 마찰이 예상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학당국의 답변은 '문제해결'이 아닌 '회 회' 또는 '5개년계획'속에서 논의 해 보겠다는 '일기' 입장처럼 들이오지 않음은 충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재질의서에 대한 공개답변은 오늘(27일) 방기로 되어있다. <임은경 기자>

용인, 총학 집행부 2명 해임

총학생회장, "집행력 강화위해 불가피"



용인캠퍼스 김덕민 총학생회 장은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기 용(서학·영) 4명과 사립집 회국장 이원성(동학·사립) 4) 군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시자주회는 이원성이 해 임이 아닌 벌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김덕민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에 대한 관리책이로 집행이 어 렵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 령 강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임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총학생회장 김중화 (동학·아랍어) 3) 군은 '임무상 과무가 없는 강부'를 논의하고 있 기, 집행권도 없는 중앙운영위

원회에서 해임시키는 것은 부 당하다"며 반발을 표했다. 간부 해임문제는 2학기 들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되어온 학생회 조직체제와 집행력에 관한 문제에서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즉 확대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 로가 집행되기를 요구하는 측 과 집행부 나름대로의 단행성 논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는 측 의 대립로 집결할 수 있다. 간 부위원의 직립적 계기가 된 것은 운영본부, 선봉대, 등 구이대 학생회 간부에 대한 장 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의에 서 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원회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학생회칙이 있긴 하지만 유방부실제진도 오래됐 고 그동안 문제가 터지자만 근 시안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온 관행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회칙에 명시된 총대의 임명회 과정만 불문, 학생회 비 감사, 사립보고서 승진 등 단 행관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호 구성조치 되지 못하고 있 다.

초점

서울캠퍼스 본관에 위치한 등·서원대의 사서함, 영어과, 중국어과 등 주요학과의 학생수가 4배면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사서함은 2개에 불과해 우편물들이 쌓여 있다. 이로인해 우편물을 찾기도 힘들어 시간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한상준 기자>

◇경인총련 출범식을 통해 살펴보는 '제2캠퍼스 문제'

불분명한 위상, 복지·교통 등 낙후

본교를 비롯한 제2캠퍼스 대학들이 고질적으로 안고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 이 이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수) 인천에서 열린 '경기 인천지역 대학 총 학생회장연립'(경인총련) 출범식 은 이 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생활, 학문적인 문제점들을 정 고 이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 기 위한 연대투쟁을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김은경 기자>

제2캠퍼스에는 서울 중 수도권 출신 학생이 70~80%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기숙사 는 부족하고 숙방이나 자취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어 정복교 인구분산 정책은 '수도권 교포 난'가중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제2캠퍼스 대학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대학생 18만여명중 이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설 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1인 당 면적 34.4평이상의 건립평 수가 필요하다며 교복부 기준 평은 40평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교 평면도는 20평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은경 기자>

이와함께 수도권 학생들의 생활수준도 낮고,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학생 1인 당 면적 34.4평이상의 건립평 수가 필요하다며 교복부 기준 평은 40평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교 평면도는 20평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은경 기자>

정부·사학재단이 만들어 낸 기형아

경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대안 강구중 총련

13만여명이 서울 수도권 지역출신이며 그 문제의 심각 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등 구문제에 있어서는 몇몇대 경우 학교주변에 목욕탕이 없 어 목욕하기 위해 광주, 용인까 지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현상 까지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것은 갈등으로 이를 승수하는 학교 지체 방법에도 우려가 많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대학이 주변은 날로 슬럼, 노폐물처리 시설도 부족하고 문화공간 과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전 혀 찾아볼 길이 없다. 본의 불합, 사후로 남부투쟁을 벌 이며 이 기점으로 교복, 주거부 제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은경 기자>

이외에도 오후 5시엔 버스는 공회와 학생, 제2캠퍼스로서 는 취업이라는 불명확한 대 무, 결국 분교비용을 발생시킨 명칭만 제2캠퍼스인 이러한 대

나 교복문제에 있어 '서해안 고 속도'로 완공, 수도권 전철망의 조기 구축을 요구하며 이 지 역에 존재하는 미군기지(반 환투쟁, 사후로 남부투쟁을 벌 이며 이 기점으로 교복, 주거부 제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은경 기자>

외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조명해 본 계기

외대사랑학교 강연정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외대 발전 학생추진위원회(이하 외 대추진) 공동 주최로 지난 13일(월)부터 15일까지 3일간 2차 대외대사랑학교 강연정리를 시작하여 23일(목)에 첫 번째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 을 맺었다. <김은경 기자>

대외사랑학교는 단대추진 심으로 강의내용을 준비하는 등, 간부총장이 아닌 일반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큰 의 의를 두었다. 또한 지난 23 일(목) 이강연에서 우리는 외대 사랑학교 주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외대사랑학교에 참가하여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는 사실중심의 평가로 예전 과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김은경 기자>

대외사랑학교는 단대추진 심으로 강의내용을 준비하는 등, 간부총장이 아닌 일반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큰 의 의를 두었다. 또한 지난 23 일(목) 이강연에서 우리는 외대 사랑학교 주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외대사랑학교에 참가하여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는 사실중심의 평가로 예전 과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김은경 기자>

대외사랑학교는 단대추진 심으로 강의내용을 준비하는 등, 간부총장이 아닌 일반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큰 의 의를 두었다. 또한 지난 23 일(목) 이강연에서 우리는 외대 사랑학교 주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외대사랑학교에 참가하여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는 사실중심의 평가로 예전 과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김은경 기자>

효성에서 꿈을 펼쳐보십시오.

반영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을 찾습니다.

'94년도 대졸신입사원 모집

모집부문			
구 분	전 공	모집인원	
인문사회계	관련 전과	40명	
응시자격			
1991년 1월 1일(학사) 이후 졸업자 또는 그 귀속자 (대학원 출신자는 유예)			
1966년 1월 1일(학사) 이후 졸업자로서 남자는 20세 이상, 25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5세 이하 (사: 비례상도 지원가능)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적성(인성)검사, 면접 및 실습검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인성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에 상이해, 효성물산(주)와 효성중공업(주)에서는 영어시험 실시)			

지원서류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1993년 10월 8일(금)~10월 14일(목) 09:30~17:00(단, 공휴일은 교부만 함)			
●교부처			
지역	교 부 처 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02-771-110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0 (공덕빌딩)	(화) 170-2	
부산	효성고급인력관리연구소	021-707-9090	
	부산시 중구 중앙동 471 (영진빌딩 6층)	051)	
대구	효성물산(주) 부산지사	463-1971-7	
	대구시 서구 내당동 242-1 (평성빌딩 6층)	053)	
광주	효성물산(주) 대구지사	562-5924-6	
	광주광역시 동구 금호동 171 (전일빌딩 4층)	062)	
대전	효성물산(주) 광주지사	222-1175-6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42 (세일빌딩 7층)	042)254-5887	
청원	효성물산(주) 대전지사	221-4083	
	청원시 내동 청원기공기업지구 A-1 지구	0551)	
울산	효성중공업(주) 청원공장 노무부	68-2042-4	
	울산시 남구 대명동 588-4	0522)	
●접수처: (100-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0 (공덕빌딩) 효성그룹 인력관리위원회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남:모소장양식)	1부
·대학 진학내력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진학내력 성적증명서 (취사에 한함)	1부
·2학기에 나온 과목 성적증명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일시: 1993년 10월 29일(금) 14:00	
·장소: 접수처와 동일(성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기 타	
·유연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등기우편에 한함.	
·공인인증부종인 자: '93년 11월말까지 전액사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국가보훈대상자: 선별법에 의거 유예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771-1100(교화 170-2), 707-7090-2	



효성인력관리위원회

한가위
특집

북한의 추석은...

88년 추석, 89년 설·단오, 명절 복권 민족공지 높이는 민속놀이 장려

놀이...소놀이, 강강수월래, 거북놀이 등 음식...송편, 노치, 단자 등

사회주의적 명절과 민속명절

인간에 두면 정월보름과 팔월보름에 우리는 정말 단결은 달을 보게된다. 새달맞이로 억이기는 등에게 휘둘러 달이 뜨면 가슴의 풍요로움을 성취할 터 때문이다. 중지도 달지도 않은 이 순간에 추석명절이 지리잡고 있다. 추석은 한국 4대명절의 하나로 중추절(中秋節), 기백(嘉節), 기회,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절중에서 가장 풍성한 절기다.



서당학동들이 과거합격을 빌며 행하던 기마싸움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졌어도 추석명절은 같은 민속이 없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50년대의 사회주의화입과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명절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 즉 북한의 명절은 두가지로 변질해 온 것이다. 첫째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선정하여 경축하는 사회주의적 명절. 둘째로는 유적으로 해마다 임정하게 지키며 민족적으로 즐기는 민족명절이 그것이다.



부귀나 짐승을 주었던 거북놀이

따라서, 오늘의 북한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명절 그대로의 명절은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서 전통의 해석 역시 사회주의적 현실에 맞게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북한사회에서 전통정경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제도도 근본적으로 변화된 조건에서 전 시대의 명절들이 존중의의가 반감되거나 소멸된다는 해도 오랜 풍습으로 지켜져 오는 명절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즉 새로운 풍습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상당구간의 급격한 개혁의도에 비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더욱이 60년대에 남아 있던 추석과 추석에 조상상을 짓지 않고 명절음식을 나누어 먹는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었기 때문이다.

성묘, 명절놀이 그대로
북한에서도 민족명절은 도시보다는 농촌, 젊은층보다는 노

인층을 중심으로 전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 점은 현재의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여기서 북한명절의 위치를 가늠하는 한가지 측면으로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살아있는 사회라는 점이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정서에서 오사상에 대한 공경은 지극히 전통적이며 조상에 대한 정교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이든 추석이든 성묘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북한에서도 한해 나날이 일어나는 묘지분제현황을 위해 화장을 권장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하나 환경보호의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여견히 곳곳에서 산이었고 성묘문화도 전래하고 있다. 따라서 추석에 조상상을 짓지 않고 명절음식을 나누어 먹는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의 변화에 따른 전래 전통의 변화는 관례적

는데 반하여 민족명절만은 유적으로 쇠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설날인 음력 1월 1일, 단오, 추석이 북한의 민족명절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교류나 통일이 가는 과정에서 민족명절을 강조하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족명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근년에 추석명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자료(조선대 91년 5호 '추석의 유래와 민족')를 살펴본다.

조선시대 915호 '추석의 유래와 민족'중에서
유래하는 지도자 동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속놀이를 장려해야 한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장려하면 서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추석을 삼국시의 의소곡과 결부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추석명절이 근대인민들의 생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추석이 민족놀이를 강조하고 소놀이, 강강수월래, 조리놀이, 거북놀이 등을 좋아하였

다. 또한 이러한 추석놀들은 비록 소박하지만 마을사람들의 단합과 친목을 이룩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기여하였다. 인민들은 햇곡식으로 송편, 떡, 노치, 단자 등을 만드는 풍습도 강조하였다. 동시에 민족행사로서 조상들의 무덤을 찾는 일도 강조하였다. 무덤을 돌아보는 것도 중시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와 애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민족놀이를 장려하여 대대적으로 가르치실 것을 주시고 그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훌륭히 마련하시어 이룩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경현
<민속학 학자>

청년학생들의 남·북 자주교류투쟁을 고찰한다

나도 가고 너도 가면 분단철책은 무너진다

단일청구 개요

다각적 교류해야
청년학생의 자주교류사업은 통일투쟁이 88년부터 본격화된 후 89년 평양축전 참가, 90년 1백개교 방북투쟁 전개, 91·92년 편지교환투쟁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는 지매결연 사업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88년 이후 남북청년학생들의 서로 만나기 위한 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진은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통일선봉대원들 <사진: 말> 사진은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통일선봉대원들 <사진: 말>

한총련 93년 목표, 편지교환 이어 자매결연까지 자주 교류 실현, 합의서 국회비준·국보법 철폐로

한시 자주교류투쟁의 발흥은 남북의 대외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양국의 창구인민들의 지지와 다각적인 교류와 국가인민의 절제, 남북협약서 이행 등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년학생은 민간차원의 교류와 만남을 실현하는 선봉대역할과 합의서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남북, 북·해의 청년학생들의 공동조직인 민족 자주교류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의 실현을 미연히기 위해서는 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미국의 부당 내정간섭과 전쟁범죄행위를 중지시키고 합의서의 국외에서 공식비준되어야 한다. 합의서 국외비준은 합의서의 이행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 여타 사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국외비준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합의서 이행과 자주교류 실현을 남북의 청년학생들의 자주교류 이루어지는 여러 조건

학생의 날까지
자주교류 기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93자주교류투쟁의 내용을 보면 지난 3월달에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소속 김일성 종합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경제공업대학 등에서 전국 25개 대학 단위로 축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4월달에 편지교환 투쟁을 코리대, 서경대, 경북대, 전남대 등 8개 대학을 비롯해 과, 동아리연합회 등 20개 단위가 전개했다. 이어서 민족 자주교류투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총련 전체 투쟁으로 설정한 것이 6·12 자매교류 예비회담이다.

한시 자주교류투쟁의 발흥은 남북의 대외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양국의 창구인민들의 지지와 다각적인 교류와 국가인민의 절제, 남북협약서 이행 등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년학생은 민간차원의 교류와 만남을 실현하는 선봉대역할과 합의서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남북, 북·해의 청년학생들의 공동조직인 민족 자주교류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의 실현을 미연히기 위해서는 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미국의 부당 내정간섭과 전쟁범죄행위를 중지시키고 합의서의 국외에서 공식비준되어야 한다. 합의서 국외비준은 합의서의 이행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 여타 사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국외비준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합의서 이행과 자주교류 실현을 남북의 청년학생들의 자주교류 이루어지는 여러 조건

민족대회 기일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준비부족과 당면한 정세상 중재적으로 풀이되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한반기 자주교류 투쟁은 상반기 준비되었던 투쟁을 총괄을 대외에 펼치는 시기로서 통일 투쟁의 핵심을 힘써 국외비준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집중하고 남북의 자주교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주교류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학생의 날까지 설정한 것은 단호 학생회가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별 자주교류 추진상황

연세대,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는 9월달에 열었던 연교협회 북한 학생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의 날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에서 경·평해전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연교협회는 북한 학생 초청을 정부양국은 물론 해군 우선 해군 일선에 따라 불허를 했다. 이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불허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연교협회와 정치적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 불허하는 것이 정부의 자주교류 정부양국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한시 자주교류투쟁의 발흥은 남북의 대외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양국의 창구인민들의 지지와 다각적인 교류와 국가인민의 절제, 남북협약서 이행 등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시 자주교류투쟁의 발흥은 남북의 대외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양국의 창구인민들의 지지와 다각적인 교류와 국가인민의 절제, 남북협약서 이행 등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공전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시민들을 개척한 영웅은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사화와 기술로 인종에 걸쳐 보편적 사랑을 받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제국의 교동을 받고 안일 비축을 늘려가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다음은 21세기 -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유비쿼터'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단단하게 부합한 상상을 얻어주는 의무의 헌정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거꾸는



그림돌보기 - 직원과 학생, 서로 어떻게 생각하나?

교수, 학생, 직원 이 셋을 '학원의 3주체'라고 한다. 그만큼 3주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졌을 수 없고 서로간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그중,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강의라는 매개가 있고, 사제시간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직원들의 관계는 좀 다르다. 늘 같이 생활하면서도 유대감이 전혀 없고, 단지 실무적으로만 만나며 때때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나태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나 해결책도 없이 시간이 누그러져 사제간의 끈이 끊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현상에 대한 조언이나 비의견을 모색하고자 본보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설문지를 따로하고, 서울 캠퍼스와 용인 캠퍼스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분석을 하지만 현재 느끼는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그 어떤가(76.2%), 별로 좋지 않다(14.3%)로,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모든 일을 학생들의 기준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태도(54.1%), 쓰레기, 고성방가 등 일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을 주는 점(25%)도 지적되었다. 또, 학생들에 예의가 없다는 점도 나타나 학생들의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태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하면, 원만한 교직원, 학생들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직원들의 의견으로는 먼저 모든 행동의 기본이 사제간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85.7%), 학내사단 등 경이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8.9%),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캠퍼스 물은 학생과 교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대답은 학내 문제에 대한 참여 정도는 차이있지만 학생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원했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만 맺는 관계를 자랑하고 바라는 점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 줄 알아야 된다는 것과 자기중심

학내 직원의 위상은 현재 어떻다고 보십니까?



직원과 직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해야 한다. (57.1%)

학내 모든일에 대해 같이해야 한다. (42.9%)



의 많은 태도에 원했다. 직원노조를 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버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가끔씩, 아니 하루에 한번쯤은 교내에서 지나칠 수 있는 불만이 바로 직원들이다. 우리의 생활 중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인식을 달라려야 할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들은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다짜고짜 학생들을 길잡이하고, 맞가지 보다는 한발짝 더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물러서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주며, 같은 학교의 성원이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 직원에게 -

문항1) 현재 학생들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개인적 감정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9.5%)
 그제 그다지. (76.2%)
 별로 좋지 않다. (14.3%)
 기타

문항2) 학생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학생들 기준으로 두고 생활한다. (54.1%)
 직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준다. (쓰레기, 고성방가 등) (25%)
 기타

문항3) 직원들과 학생들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직원과 학생들 간에 정기적인 만남의 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4.8%)
 먼저 사제간에 존중받을 수 있는 의미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85.7%)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일, 즉 학교생활과 같은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한다. (9.5%)
 기타

문항4) 학생과 직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학내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이 한다고 본다. (42.9%)
 학내 문제에 대해 자제해 행동하는 관계는 가장 바람직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만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57.1%)
 기타

문항5) 학생과 직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학내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이 한다고 본다. (42.9%)
 학내 문제에 대해 자제해 행동하는 관계는 가장 바람직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만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57.1%)
 기타

문항6)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7.6%)
 그제 좋은 편은 아니다. (64.1%)
 별로 좋지 않다. (1.3%)
 기타(22%)

문항7) 직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이다. (47.8%)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을 주는 점이다. (14.3%)
 학교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것 같다. (20.7%)
 기타(16.4%)

설문조사 기간: 9월 23일(목)
 설문조사 인원: 직원 25명
 학생 96명

한국어의 위상

평수당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곳에서 의 직업적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 괴민과 괴민이 보고 한다.

나는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1년 동안 일본의 칸다(神田)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어 회화를 비롯하여 한국어의 개념, 한국어 음성학, 한국어 문법 및 한국어사를 강의하였다.

칸다외국어대학은 지바시에 위치하고 있고 1987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한국어학과 학생은 전학년을 합쳐 약 1백여 명이 있다. 나는 칸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참으로 호감할 일이었다.

칸다대학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는 극도로 고조되어 마침내 한국어교육학과의 한국어 연수과 설립되었다. 첫째로 급진 2월 겨울 방학을 이용한 한국어 연수가 우리 대학 외국어 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이 연수에 참여한 칸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은 무려 24명이나 되었다.

실로 예상밖의 신선한 충격이었던 일이다. 특히 14명의 칸다대학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외국어 연수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

일본 동경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한 달에 한번 개최되는데 한국어와 대를 전공하는 일본인 학자들과 대

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약 20명 정도로 참석한다. 나도 이 모임에 열 번 참석하였고 발표도 한 번 하였다.

이 모임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주로 현대 한국어에 관한 것이다. 발표가 한시간, 토의가 한시간 꼬박 두시간이 걸린다. 발표가 끝나면 전지하고 열린 토의가 같이 빠진 정도로 진행된다.

두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의가 끝나면 주제가 바뀐다. 술자리

의는 대단하였다. 강가 끝난 후, 그들과 생애주를 마시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토아라는 우리나라 동해 쪽에 위치한 정점으로 유명한 곳이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8만 동양인이 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민간의 해외 체류는 젊은 것이지만 그 동양인의 체류는 젊은 정도도 수중되고 젊은 것이었다. 일본에서 한어 위상과 한국어 연구현황을 보고 들을 수

한국어를 국제어로 격상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모두에게 있다.

남 성 우
 <한국어교육과 교수>

에서는 미친했던 논의가 다시 계속되는 것이다. 술잔을 기울이던 서 나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일본인 학자들과 친교를 더욱 두터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도 토야(高田)에 있는 토야대학 조문학과(調文學科)의 초청을 받아 1993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8일동안 한국어 강의를 하기 위해 토야대학에 갔다. 강의 듣는 학생은 10여 명이었고 그들의 한국어 학습

취업관련 자료 이용방법

안타 과 기업체의 모집요강 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정보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되어 있어 이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캠퍼스는 학생회관 1층, 용인 캠퍼스는 학생회관 2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다. 이곳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신청서 보냈다는 구인 정보를 지워서 마감일지, 구인모집요강, 발표 경리를 해놓고 있다. 또한 권위있는 취업정보지 리크루트, PC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정보지는 FAX로 발송되는 것

어야 실속있고 안정성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정보 카드를 받아 제공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취업이 되는 확률이 높고 하여 비합리적일 경우 많은데 취업에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자료를 보고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직접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고 화와 등의 재원이 있을 경우 과의 학과장이나 취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세부 상태, 입사조건 등은 알아보고 하여 학생생활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상담을 문의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물어보기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내 발표 직접 뒤

▶ 남정이 기자



세모습 새시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사영어학원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세모습, 새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나며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었습니다.

TOEIC TOEFL L-C AFKN News & Drama 청취반 미국어 HEARING TIME 영자문 영어회화 (한인-미인) WRITING SEMINAR

영어문법·독해·회화 일본어 능력시험(대·중·고) 특급영어문법·독해·회화 라이더(영어·독어·회화)

TOEFL 300점대 VOCAB 22000 가로 VOCAB 상문독해영어 상문번역영어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특역대학원준반

▶ 주일특별반

대표 734-2442 종로2가 종로서적 뒤

추석 귀향버스 28일 오전 출발

서울, 1천여명 귀향버스 이용 용인, 7개방면 3백여명 귀향

추석을 맞아 서울캠퍼스 학생회와 용인캠퍼스 학생회는 귀향버스를 운영한다. 서울캠퍼스는 광주, 부산, 강릉 등 총 27개 노선이며 분교, 평촌대, 서울여대, 산업대 등 4개 대학 학생복지위원회가 연합하여 운영한다. 학생복지회는 북한산 숲과 제주 표충굴 등 귀향선물을 판매하고 있다. 장류, 대전을 제외한 25개 노선은 탑승자를 추가모집하고 있다. 이화원까지 바스타다 도시락도 제공하며 목욕지도 비치하고 서울로 귀향하는 차량에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차량에는 제비가 꾸며져 있다.

오전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다고 한다. 귀향버스는 양평 공회 28일 (화)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모현학사 야외무대 10월 초 안무 예정

이제 막 시작된 '일본근대 문학상'은 1년에 1~2회 발간될 예정이다. 대학원 일본어과 학회지 창간

용인캠퍼스는 부산(마산권), 강릉 등 총 7개 노선(251명 탑승예정)을 운영한다. 또, 추가신청자를 내일(28일)

모현학사 야외무대 10월 초 안무 예정

이제 막 시작된 '일본근대 문학상'은 1년에 1~2회 발간될 예정이다.

용인, 10월4일 '양산체전' 개막

양산발전 위해 하나되는 계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0월 4일 (월)부터 8일 (금)까지 '양산 체전'을 연다. 대동제와 대축이 용인캠퍼스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7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용인캠퍼스의 '양산체전'은 2학기 학생자치운동회 개최와 학생들의 단결된 힘을 이어나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진행되며, 농구는 전후반 총 30분(휴식시간 10분)으로 학생회관 앞 농구장에서, 줄다리기는 대운동장 농구장에서 열린다. 이와 더불어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양산 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양산추진소를 강요해 대운동장으로 돌이키는 경로로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 축구, 남자씨름, 여자 단축농구, 1백미터, 4백미터 단거리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서양학대 학생회 2학기 정기총회

서양학대 학생회가 2학기 정기학생총회를 이관학과 앞마당에서 열었다. 비상학생총회날인 지난 22일 (수) 열린 이날 총회는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학기 사업평가와 2학기 사업계획안, 2학기 학원자주화 추진사업에 대한 교양과 저학년까지의 투명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24일 (금) 개최된 장인총원 총회에서의 대안 의의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 학생회장 박영창(이대리더 4)은 "후생복지를 전담할 학생자치위원을 제2캠퍼스의 고집진인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동구어대 '제2회폭풍제' 개최

단체분리 위한 단결의 장

용인캠퍼스 동구어대 학생회는 '제2회 폭풍제'를 지난 22일(수), 23(목)양일간 개최했다.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동구어대 단체분리의 경과보고와 이후 투명과정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또한 플랜더와 운동본부 학생들 30여명의 부총장실 향의방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문과 양광에서 동구어대 현판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 행사는 보물찾기, 민속놀이, 민안

'민중가요제 등의 행사를 통해 동구어대 단체분리의 지의 구성원들의 의지를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동구어대 '폭풍제' 행사에서 유희아와 우송을 차지했으며 민안 유제에서도 '사랑으로'를 유수승이 수상했다.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은 광주, 하남지역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뒷풀이를 진행했다.



경인총련, 5천여 성황속 출범

지역운동 활성화·제2캠퍼 문제 해결 논의

경기·인천지역 총학생회 연합이 지난 24일 (금) 전야제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이 날은 5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지된 전야제에서는 회담의 노래공연과 분교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경인총련 집행위원장은 총부학생회장의 시회로 진행된 전야제는 '조국 그

어디든 이룰때를 애국을 새긴다'라는 주제로 대대도운 분교와 관련이 계속되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출범식에서는 초대의장으로서 경인총학생회장을 김성준을 옹립하고 김형·유아에 대한 인준과 총부학생회의 출범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경인총련 집행위원장은 "경인총련은 이후 한층 단결화와 지역전선운동 강화에

부담할 것이다"며 95년 조국 통일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이번 경인총련 출범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밝혔다.

컴퓨터 전시회 열려

용인 '돌컴'추진

용인캠퍼스 22일(월) 연구동에서는 지난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제2회컴퓨터 전시회를 열었다. 해내 컴퓨터화를 보급하는 일로써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컴퓨터 용어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Ver 1.1 소프트웨어(한글 Ver 2.1)이 소개되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 구축 방법(Null, PC-Server) 등의 발표(Hub, Modem)를 이용한 1:1통신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7월이 접어들어 이번 전시회의 취지를 들먹이던 강승석(서대, 독학인 2)은 "전시회를 통하여 해내 컴퓨터화를 보급하고 선배들 졸업생들의 후원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기련, 방북 취재 추진

당국 승인서 10월 중순경 방북

전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전대기련)은 지난 24일 (금) 방북 취재팀을 구성하여 방북 취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91년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추진은 전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방북취재팀은 방북취재팀을 구성하여 방북 취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북취재팀은 방북취재팀을 구성하여 방북 취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진된다. 이번 방북취재는 방북취재팀을 구성하여 방북 취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북취재팀은 방북취재팀을 구성하여 방북 취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창설 30주년 기념제' 개최

서울이태리과, 성원간 단결도모

서울캠퍼스 이태리과 학생회는 '과창설 30주년 기념제'를 지난 20일 (월)부터 25일 (금)까지 열었다. 과 개설 30주년을 맞아 과의 발전상을 돌이켜 과학생간의 단결을 도모하며, 동문과의 연대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영예적, 사적인 원익과 동문의 지리마모로 눈길을 끌었다. 이태리과 학생회는 21일 (수)부터 22일 (목)까지 양일간 '지중해(Mediterranean) of 6'를 주제로한 여학생 휴게

실에서 상행했다. 이의 더불어, 이태리 과를 소개 시킨다는 예술계 기간중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었다. 상경대 단합대회

배병성군 심리공관 열려

폭행치사 사실무근 주장

김준호 순경 폭행·살인 혐의로 구속수감된 배병성군(배병성군 심리공관)은 배병성군의 변호인이 배병성군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배병성군은 배병성군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배병성군은 배병성군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사람

"동유럽 5개국의 단체분리 독립문제는 87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7년전만 단체분리 투쟁의 성과를 통해 9월 한가위가 오기전에 양산 5년 학우와 함께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87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쳤는데도 동구어대 5개국의 단체분리 독립문제가 대해 이산비(서하·플랜더)는 3일만 열린다. "추석연휴로 지금까지의 단체분리 독립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어졌던 단체분리의 의지가 후속 느슨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계속되는 학우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단체분리 독립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산비(서하·플랜더)는 3일만 열린다. "추석연휴로 지금까지의 단체분리 독립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어졌던 단체분리의 의지가 후속 느슨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계속되는 학우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단체분리 독립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어대 5개국의 발전방안은 우리의 선배님들과 지금의 재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인내와 끈기로 학생들을 지켜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단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단체분리의 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동구어대 단체분리를 위한 단결을 진흥중인 이산비(서하·플랜더) 3일만 열린다>

5년 전만해도,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해 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금성의 새가전

어려부터는 흑시, 5년 전에 이런 일들은 상상해 보셨나요? TV와 VCR, 컴퓨터, 오디오, LDP가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고, TV에 CD를 넣어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방을 꾸미는 일들— 금성이 새롭게 선보이는 새가전은 생활속에서 정보처리까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형 가전제품들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금성의 새가전 시리즈 이제,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CD-I 플레이어 TV, VTR, LDP, 오디오, 컴퓨터의 모든 기능이 한데 모아진 가정용 멀티미디어

금성의 새가전 시리즈— 생활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CDG-TV TV와 CDG 플레이어까지 하나로 합쳐 TV만으로 모든 일상을 하고 노래방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형 가전용 TV

WIDE VISION 16.9의 크로스비전 비네팅을 위한 원거리의 감동과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차세대 대형 TV

AVEST 오디오, TV, VTR, 스피커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이 주는 신세계 A/V

□수필-한기위에

보름달 만큼 짝찬 사랑의 집 아줌마

초가을이 주는 시적인 분위
기 탓일까? 아니면 그리움과
애상으로 얼룩진 4학년이라는
부서운 위치 때문일까? 하여
튼 난 알 수 없는 사색에 빠진
다. 어둡게 보던 우리네 하루하
루의 삶이 밝아지고 하얗게
보일지 모르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일상적인 것
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가 없다. 그리움과 추억 속에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
구하고 난 아직도 하숙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특히 어머니의
그리움에 대해 주신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잊을 수 없다.



두려움으로 시켜진 나의 시
를 생각.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유독 하
숙집 안사람들은 푸근하게 다
가웠다. 처음 그 하숙집과 인연
을 맺게 된 건 교과 앞에 붙은
자그마한 쪽지를 본 탓이다. 한
적한 사생활이나 맞설 수 있는
특별기회를 인연을 삼키한 개
지인 이 서울 방에서 느끼게 되
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놀랍
게도 24시간 내내를 활짝 열어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오
갈 수 있는, 게다가 정이 넘치
다 못해 그럭저럭 쌓이는 부부
도련(?)을 서서에서 갖게 되었
다.

‘하숙생 구함. ○○반’
이 문구는 나를 유혹하기에 충
분했고 결국이 나는 다이얼을
눌러 그 하숙집의 일원이 되:

었다.
외대를 졸업한 후 이미 사회
에 진출하신 선배님을 비롯하
여 대학원과 학부생 등 8명의
하숙생들. 때론 격같은 강동은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모
두를 타향살이라는 동명상편의
지지를 이해하며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기도 애썼다.
특히 모두를 한 자리에 모아
게 되는 밤 12시가 되면 모의
작은 명절이라도 단란한 웃음

꽃을 피웠다. 담소의 주제는 대
체로 직장에서 겪었던 사소한
일과부담, 사회 문제에 관
한 진반적인 것이었다. 물론 모
임에서 먹는 게 빠질리 만무했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주방은 언제나 내 지레였다. 야
참으로 간단히 먹는 것이었기
에 음식은 대체로 김치볶음밥,
리면이었는데 배가 고파서 그
런지 모두를 맛있게 먹었다. 어
찌든 음식 그 자체보다 바쁜 생
활인양정 잠시나마 얼굴을 마
주하며 얘기할 수 있는 여유 그
자체가 더 큰 기쁨이었는데도
모른다. 다만 아주머니께서
는 밥을 먹는데 별 개의를 없
으셨다. 하루의 일과에 지쳐 피
곤한 빛도 있었지만, 하숙집 아
주머니와 학생이라는 현실적
인연을 떠나 친자식처럼 보살
핀다는 것과 학생들이 최대한
편하게 지내도록 간섭을 얹지
않는 게 아주머니들의 신념이
었다. 이로 인해 하숙생들은 군
제나 후 복학할 무렵이면 항상
미리 찾아 뵈고 인사드리면 항상
제대로 반겨주셨다. 하숙생 중
타듯대갈적인 형은 무리 10년
동안이나 생활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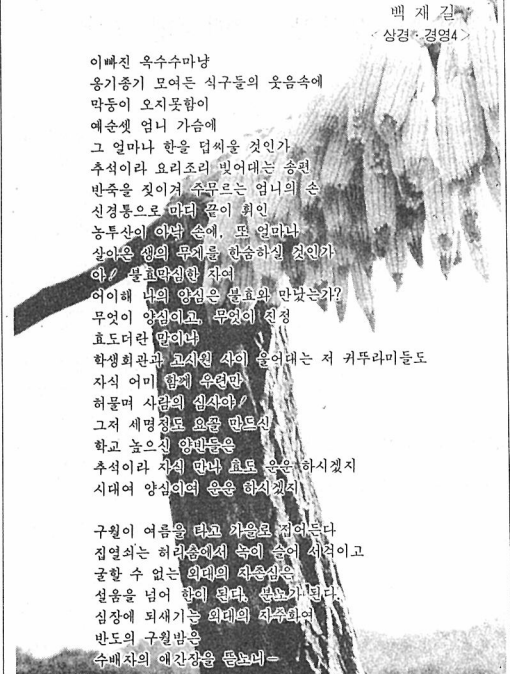
그런데, 이 하숙집의 한 가
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모의
비인 8명의 하숙생 외에 재원
하숙생(?)이 무리 50명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의
내 배하숙생들로서 하루 세끼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점
에 대해 모의는 ‘무반주 첼로
조곡’을 들려주며

전 병 옥
〈서양·열어 4〉

□시-수배 석달에 부처

가을의 문턱에서

백 재 권
〈상경·경열 4〉



이해친 옥수수마냥
용기종기 모여든 친구들의 웃음속에
막둥이 오지못함이
예송했 습니 가운데
그 얼마나 한을 뒤집을 것인가
추석이라 요리조리 밧이에는 송편
반죽을 짓어 주무르는 어머니의 손
신경통으로 마디 끝이 희인
능두산의 이박 손에. 또 얼마나
살이든 씹의 무릎을 만손하진 것인가
애 / 팔코파심한 지어
어이해 나의 양심은 문호와 만났는가?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직접
효도하던 딸이냐
학생회관과 고시원 사이 울어대는 저 커두리미들도
자식 이미 얽지 유년/만
하물며 사랑의 심석야 /
그저 세명칭로 요양 만드신
학교 높은 신 양만들음
추석이라 차의 만발 효도 음식 하시겠지
시대에 양심이라 운운 하시겠지

구월이 여름을 타고 가을로 넘어간다
집안에는 허리살에제 속에 숨어 서서적이고
군할 수 없는 의대의 작음살을
실용을 넘어 한의 필담, 뽕노기된다
심장에 되새기는 의대의 작음살을
반도의 구월밤을
수배지의 인간강을 듣는다-



봉기(蜂起)를
위한
봉기(蜂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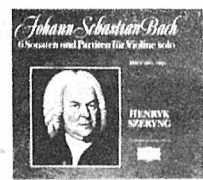


지난22일(수) 서울캠
페스 정기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
앙간부들 맞이위한 축하
위를 벌이고 있다.
〈한성준 기자〉

김용대
〈서학·특이 〉

□음악평-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들려

바흐가 들려주는 가을소묘



언젠가 나는 그 밤의 담배
연기를 뿜으며 사색에 잠긴 모
습이 저것 표지처럼 깊은 잠의
의 음반을 썼다.
이 연주의 명칭은 익히 들었
지만 사춘기의 어린 감정을 가
진 것이기에 그때의 감동은 이
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구
원할 달인 레코더 3장 간의의
전곡을 2번이나 들었으니 디이
상 할 말이 없는 것도 당연하
다.
그 후로 그 음려는 비유이 혼
련한 시절에 나의 평운원을 갖
는 길잡이가 되었다. 수없이 지
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새겨
되어 바흐의 다른 명곡들을 읽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
다. 또 어떻게 하든 그들은 정
명한 기를 오호기 되면 파듯한
저항전과 어울려 더욱 더 가슴
을 뚫듯하게 하기도 한다.

이 곡은 200년 동안이나 세
상에 알려지지 못하다가 1859
년 어느날 카탈루냐의 수도
바르셀로나의 어느 휘악기질
오숙자 구사에서 오랜 세월의
민심을 뒤집어 쓴 채 당시 13세
였던 파블로 카잘스의 첼로
를 공부하는 소년에 의해 발견
되었다. 그 발견은 음악사적으
로 혁명바스의 신세계 발견에
비길 만한 것이었고, 또 그로
인하여 후에 파블로카잘스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중요한
사건 이기도 했다. 카잘스는 그
후 12년동안 파나는 혼란기에
공개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었
다.
카잘스 자신도 "이 연주는 내
생애의 한 시기를 이룩하는 사
건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경
망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연
주였다. 그러나 그는 30만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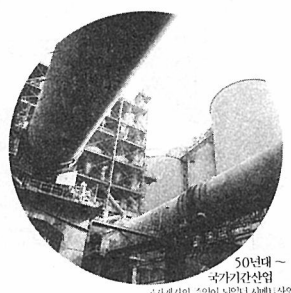
나 미만하지 않고 연주 불가능
한 부분(바흐의 시대에는 첼로
가 없었다. 이 곡은 원래 그것
과 비슷한 5현의 악기를 위한
곡이다)을 수정하며 40여년간

악기를 이용해 다양하고 견실
한 음악의 대성당을 이룩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 곡은 어느 관공을 접해도
한 개의 첼로로만 연주를 하지
않는다. 그 생명력과 기술적 완
벽성, 내부적 통일성, 논리성,
즉흥성 등의 혼연일치에서 어
떠한 연주자라도 비길 수 없다.
흔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
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1001-1006)를 바이올린
의 지표라 한다던 이곡은 첼로
의 정서라고 얘기한다. 정서라
바이올린이라는 여성적인 사
계한 악기로 대체하고 카날르
선율의 음악이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첼로라는 풍성한 저음

어린소년 카잘스가 발굴한 첼로의 성서 풍성한 저음 악기를 이용한 견실한 음악

의 연구를 거듭하고 나서야 레
코더 작업을 거행했다.
카잘스는 이 곡의 발굴소개
와 해석의 정통을 이룩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도움도
받지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
룩해냈다. 오늘날 이곡의 연주
에 있어서 정점에 솟아 있는 카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간산업
50년대의 유일한 산업단지
설립사업으로, 한성기적은임업개발
중요한 부분으로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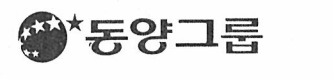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 확립사업인 증권, 담보,
보험 등을 갖춘 종합금융업으로서
경제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차대전 이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디 비전이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지고요?
그때는 미래로 미리 살아가는 미래기업입니다.
50년대 후반기 경제개발에서 목격했었던 '발전의
기동'기업에 관한 인식 변화였고, 80년대 이전엔
국립금융산업에 기적은 두드러진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미래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 정보, 유통, 서비스 산업으로 열 수 있습니다.
동양 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에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주세요.



동양시멘트 · 동양제과 · 동양증권 · 동양투자금융 · 동양생명보험 · 오리온프리트레이 · 동양매직 · 동양예운 · 동양마트 · 동양정리투자 · 동양투자자문 · 동양신물 · 동양정보통신 · 동양산업기계 · 동양팩토링 · 서남재단